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한다. 좋은 말로 '주식투자자'라고 부르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약명 높은 '투기자본가'로 알려진 미국의 워런 버핏이 총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36조원)를 자선기금으로 내놓는다는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75세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하루아침에 스타벅스로스 할아버지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그 돈은 유네스코 1년 예산의 61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며, 웬만한 나라의 한해 국내 총생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부금으로는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다. 과연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그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욕심이다. 이번 깜짝 발표 전까지는, 세계 2위 갑부인 워런 버핏 역시 그의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였다. 전설적인 주식투자의 달인으로, 1956년 단돈 100달러로 투자를 시작한 50년 동안 440억 달러의 재산을 모은 그가 아닌가? 그는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그렇게 고집 세고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게 된 것일까? 그를 움직인 것은, 한 사람에게 대한 감동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그보다 24살 아래지만, 오랫동안



불자 세상보기

김 홍 군
성문문화재단 연구실장

‘선진’의 잣대 기부문화

동반 우정을 나누는 빌 게이츠의 철학과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마침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IT 왕국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자 세계 1위 갑부인 빌 게이츠는 오래 전 '세계의 불평 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주로 제3세계의 보건과 교육 분야에 힘써 왔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도 남은 500억 달러 재산 중 가족 몫으로 1000만 달러만 남기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게이츠 회장은 2년 뒤인 2008년 7월에 그

가 장립하여 이끌어온 회사에서 손을 떼고, 여생을 재단 사업에만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을 들은 버핏은 자선사업가로서의 게이츠 부부의 열정과 헌신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버핏이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의 이름으로 된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는 판단을 내린 일이다. 기왕 자선사업을 위해 돈을 내놓는다면, 그 돈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게이츠야말로 거액을 받고 맡길 사

람이라는 신뢰가 결정적으로 버핏의 결심을 굳혔다. 버핏은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마침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억만장자들도 기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이 들어온다. 애플컴퓨터의 CEO인 스티브 잡스와 바이어컴 회장인 쉰너 레드스톤도 버핏의 자선행위에 자극 받아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위탁하리라고 한다. 미국에서 기업가의 기부금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33조 달러를 넘어섰다.

사람의 마음은 참 잘 다가가도 모를 일이다. 천하의 구두쇠들이 만년에 자비의 보살로 변신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 인간의 청정한 본심에 대한 긍정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문제는 시궁창 속에서 살면서도, 끝내 그 연꽃을 피워내느냐 아니면 쪽정리로 스러지느냐 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참 흐트러진 일이다.

보살행은 전염성이 강하다. 버핏의 선행 소식을 들은 홍콩의 액션 영화배우 성룡도 수천억 재산의 반을 자선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미리 공개한 유언장에서 밝혔다. 아름다운 기부문화의 강력한 자극이 이 땅에서도 꽃피기를 바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올해초부터 현대불교와 조계종 균종교구가 공동으로 벌여 온 '균포교합시다' 캠페인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불교계와 불자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하고 또 그러한 힘을 지닌 언론 매체와 종단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그 합당한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6개월 동안 군과 사찰 등을 견인시키고, 각종 군 위문 행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한다하니 이 운동이 모든 불자들에게 하루 빨리 파급되었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까지 들 정도이다.

개인 불자들이나 사찰들이 뜻은 있어도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를 향한 불심을 균포교의 현장에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이 알려져 더더욱 뜨거운 불심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 열악한 균포교의 현장 구축 구석구석까지 불심의 손길이 뻗어갈 것이다.

균포교 합시다

우선은 차분하게 균 포교의 현실을 알리고, 그를 통해 불자들의 의식전환을 이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직 타종교에 비해 균포교 지원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불교 기업인들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군법당의 전통사찰 양식에 대한 군의 호응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 불교문화의 친숙성을 포교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확산시켜야 한다.

현대불교의 '균포교합시다'는 캠페인이 이러한 특성화되고 다양화되는 포교의 한 모델이 됐다.

불교의 미래불자들에게 대한 포교가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환경과 지원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하여 양식 있는 불자라면 모두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미래불자 양성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균 포교의 현장은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한 것이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다.

계속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불교가 어찌될 것인지 걱정이다. 그러하기에 균포교와 같은 전략적 성격을 가진 곳에 대한 포교는 종단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페어플레이**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는 사람은 그 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불반나향경>

전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 열기가 한국팀의 조별예선 탈락으로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4년간 선수들이 쏟은 땀과 열정,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은 16강에 들지 못했다. 국민들은 시청 앞 광장을 '집수' 한 채 밤새며 응원하던 '일탈'을 중단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허탈함은 여전히 보인다.

허탈함의 이유가 한국팀이 16강에 들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4년간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이 안 쓰러가는 하지만 스포츠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패배와 승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국민들이 실망스러워하는 더 큰 이유는 한국팀이 석연찮은 판정으로 패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 방송국이 스위스 전 중계 말미에서 "축구는 오늘 죽었다"는 자막을 띄워 오심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내 큰 호응을 받은 사실만 봐도 국민정서가 어떤 것인지 가히 짐작된다.

사람들이 스포츠 게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까닭은 거기에 명확한 규칙이 있고,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그 규칙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평함이 야말로 스포츠의 매력이다.

우리에게 '월드컵'은 끝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경기장이 있음을 잊어서 안 된다. 직장과 사회, 국가라는 또 다른 경기장에서 우리들은 관중이 아닌 선수로서 뛰고 있다. 월드컵보다 더 큰 우리의 경기장이 노력하고 페어플레이 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할 때다.

■ 박익순(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내 탁아실 더 많아져야

지난 현대불교신문(584호) '아기 데리고 갈 집 어디?'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불교계의 1사찰 1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불교도 이제는 하루 빨리 산중 불교의 전통만을 고수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이웃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된 것을 불교만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당도 좌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식으로 전환하는 등 신세대를 위한 신식 건물이 많아져야 한다. 탁아실을 갖추는 것이 대단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것이지만 신도의 입장에서 신도를 위한 사찰 운영

이 포교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열반정적(붓다뉴스)**

불성있는 모든 것 존귀해

요즘 지방 국도를 달리다 보면 거의 매일 도로위에 방치된 동물들의 사체를 볼 수 있다. 2004년 하반기 지리산 인근 도로에서 차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 수는 총 1402마리로 하루 평균 7.6마리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흔히 로드킬(Road Kill)라 부르는 도로 위의 동물살상은 이제 밀렵꾼에 의한 무분별한 사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죽은 동물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을 강릉 현덕사에서 매년 열고 있다.

올해도 현덕사는 사람들이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동식물과 전국 각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동물들, 병원과 연구기관에서 실험용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때문에 생명을 잃은 동식물들의 영혼을 달리기 위해 7월 8일 동식물영혼 천도제를 봉행한다.

무심코 지나치는 보잘 것 없는 생명이지만 이들도 분명 불성을 지닌 존재다. 이런 행사를 통해 못생생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종(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 여론 조사

조계종은 4년마다 총무원장 선거 때문이다. 불교계의 수장이라는 위상 때문인지 접승도 많고 탈도 많다.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최근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과 전화 여론을 이용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가운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도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일정수 이상의 모든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선호했으며, 현행제도의 유지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

조계종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을 어떻게 선출하면 좋을까요?

| | |
|--------------------------------|-----------|
| 현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한 간선제 | 2명 (4%) |
| 총회의원 등에 의한 추대제 | 4명 (7%) |
| 일정 수 이상의 모든 비구스님이 참여하는 직선제 | 5명 (9%) |
| 일정 수 이상의 모든 비구·비구니스님이 참여하는 직선제 | 44명 (80%) |
| 현행 제도 유지 | 0명 (0%) |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연대’ 민명 **심민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 천축,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원의 및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의 탐영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